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CMC 90년

빛의
증인들 1

CMC 발전의 초석을 완성한 양기섭 베드로 신부



1961년 12월 명동에 신축 개원한 성모병원. CMC가 체계를 잡고 발전해 나가는 데 기둥이 되어주었다.

▶ <CMC 90년, 빛의 증인들> 연재기사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 경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양기섭 베드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오늘날 국내 정상급 교육·진료·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6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한국 의료계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이를 타개하고 CMC 발전의 초석을 놓은 분이 양기섭 베드로 신부(1905-1982)입니다.

의과대학(당시 성신교정 의학부)은 1954년 개교했지만 교육 환경은 열악했고 재정은 부족했습니다. 결국 1956년 초, 고려대학교와의 병합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추진되던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대의 병합에 자극을 받은 고려대 측은 적극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1947년부터 한국 천주교 주재원(연락책임)으로 미국에 머물던 양기섭 신부님은 이 소식을 듣고 의학부 존속을 주장하며 초대 의학부장이었던 윤형중 신부님에게 자신을 교구장 노기남

대주교님께 소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윤 신부님은 “일은 돈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며, 마지막 기회이니 이 문제를 양기섭 신부에게 전부 위임해달라”고 노 대주교님께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 건의가 노 대주교님께 의해 받아들여집니다.

양 신부님이 두 대학의 병합을 파기시킨 것은 조인식(1956.12.24.) 단 이틀 전인 12월 22일로 알려졌습니다(혹자는 바로 전날이라고 합니다). 기록마다 차이가 있지만 확실한 건 극적으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살아남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양기섭 신부님은 1957년 1월 9일, 제4대 의학부장 겸 성모병원장으로 취임합니다.

양 신부님은 “우리 의과대학은 세계 제일이 될 것이고, 되어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학생들을 이끌었습니다. 교육과 생활태도를 엄격히 지도했고, 학생들에게서 “대학도 유급을 시키느냐”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성적을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1960년 1회 졸업생들 전원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며 신성대학으로서 놀라운 성취를 이뤄냅니다.

또한 경성의전 출신으로 백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던 윤덕선(외과) 교수 영입을 필두로 전국 우수 교원을 영입하며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육제도를 체계화했습니다. 대학원을 개설하여 초대 대학원장을 맡는 한편,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며 대학의 고등교육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성모병원 신축 기공식에서 노기남 대주교와 뉴욕대교구 스펠만 추기경

양 신부님의 업적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1936년 중구 저동에 개원했던 성모병원의 1961년 12월 명동 신축 이전(현재의 가톨릭회관)입니다. 재원과 물자가 부족했지만 양 신부님은 ‘가능한 범위만큼 조금씩 지어 완공하자’는 목표로 신축을 추진합니다. 특히 국내외 모금을 통한 건축비 조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미국 뉴욕대교구의 스펠만 추기경님을 초청해 기공식(1957.12.24.)을 개최하고 미화 2만 4천 달러를 후원 받은 일화는 유명합니다. 또한 작업복을 입고 공사 현장에서 직접 벽돌을 나르는 등 열정을 보이셨기에 학생들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함께 공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용 충당을 위해 부득이하게 끌어다 쓴 사채로 인해 양 신부님은 소음과 논란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신축 병원의 개원을 1달여 앞둔 1961년 11월 의학부장과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십니다.

양 신부님 이임 한 달 후 신축 성모병원이 개원하고 뒤이어 1962년 2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공식 출범합니다. 대학과 부속병원, 연구시설을 총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지원하고 국내 가톨릭 의료기관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부속병원 체계가 성모병원 신축으로 더욱 고도화된 것으로, 이로써 오늘날 CMC 네트워크의 토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양 신부님은 1967년 9월 제3대 의료원장으로 CMC에 복귀하시지만 곧 이듬해 3월 다시 물러나시게 되고 1973년 사목 일선에서 은퇴하십니다. 이후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님의 부탁을 받고 총독 배론의 성역화 사업에 헌신하셨으나 1982년 4월 3일, 주님 곁으로 선종하십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남겨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1982년 4월 5일, 양기섭 신부님 선종 영결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은 강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 신부님은)확실히 비범한 인물이었으며 거목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디지털 병리 저장공간 문제 해결하는 인공지능 압축기술 개발

데이터 관리비용 절감하는 AI 기술 제시



이성학 교수, 안상정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이성학 교수·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병리과 안상정 교수 공동 연구팀(제저자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생물통계학과 이종현 박사)이 디지털 병리 이미지의 진단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적응형 압축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디지털 병리 시스템은 큰 저장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어 그간 데이터 압축 기술이 연구되어 왔으나, 기존 기술은 슬라이드를 전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세포 정보를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배경 데이터까지 고화질로 저장하는 비효율성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 슬라이드 내에서도 단위 영역별로 다르게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압축 플랫폼 '아다슬라이드(AdaSlide)'를 개발했다. 병리 이미지 내에서 진단적 가치가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 간의 '정보 불균형'을 적절히 처리한다면 중요한 진단 부위의 이미지 품질 저하 최소화와 용량 효율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약 180만 개 이미지를 활용해 학습된 '압축 결정 에이전트'는 이미지 내의 영역을 분석해 압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며, 압축된 이미지는 이후 '기초 이미지 복원기'를 통해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병리 진단 과제를 통해 성능을 검증한 결과, 해당 기술은 원본 이미지 대비 저장 용량을 최대 90%까지 줄이면서도 진단 성능은 원본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용량 압축을 넘어, 인공지능이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선별하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저명한 국제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IF=15.7)에 게재됐다.



탄소 나노입자로 재발성 건선 치료 기전 규명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 통해 'STAT3-IL-17' 염증 신호 억제



조미라 교수, 방철환 교수, 김태호 대학원생(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조미라 교수(공동 교신저자) 연구팀이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피부질환 '건선'의 근본 원인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방철환 교수(공동 교신저자)와 가톨릭대학교 의과학과 병리학교실 김태호 대학원생(제저자)이 함께 참여했다.

건선은 피부에 붉은 발진과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과 통증이 반복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CD8 조직상주 기억 T세포(CD8 TRM)'라는 면역세포로 인해 쉽게 재발한다. 이때 CD8 TRM이 'IL-17'이라는 염증 유발 단백질을 많이 분비하면 염증이 심해지고 병이 악화된다. 이에 연구진은 건선 환자의 CD8 TRM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IL-17 분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것을 파악했다.

연구팀은 '나노그래핀옥사이드'(NGO, 탄소 기반 나노물질)

을 활용했다.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NGO를 투여하자 ▲ 증가해 있던 활성산소 감소 ▲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 ▲ 과도하게 활성화된 STAT3(인산화 STAT3) 감소 ▲ IL-17 분비 세포 수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NGO가 면역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정상화함으로써 염증의 근본 신호를 차단한다는 의미다.

나이가 실제 건선 환자의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됐으며, 이번 연구는 나노기술 기반 면역연구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 《Journal of Nanobiotechnology》(IF=12.6)에 게재됐다.



증상 발생 전 진단된 '전구질환' 관리 다발골수종 생존율 향상 첫 입증

전구질환 지속 관리 환자군, 다발골수종 발병 후 사망 위험 47% 감소



박성수 교수, 민창기 교수, 한승훈 교수, 최수인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박성수·민창기 교수(혈액내과)와 가톨릭대학교 약리학교실 한승훈·최수인 교수 연구팀은 난치성 혈액암인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암이 생기기 전 단계인 '전구질환(전구상태)'을 미리 발견하고 추적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기간이 더 길다는 사실을 국

내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연구팀은 전구질환인 단클론감마글로불린혈증(MGUS, Monoclonal Gammopathy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환자 5,500명과 무증상 및 증상성 다발골수종 환자 17,809명 중 MGUS에서 다발골수종으로 진행한 환자 199명, 무증상 다발골수종에서 증상성 다발골수종으로 진행한 환자 447명, 전구질환 진단 없이 곧바로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된 환자 15,067명을 선별하여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질환 단계부터 병을 인지하고 선제적

대응을 시작한 환자군이 더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GUS을 거쳐 다발골수종으로 진행된 환자군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약 7.9년, 무증상 다발골수종을 거친 환자군은 약 5.5년이었던 반면, 바로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된 환자군은 약 4.4년으로, 전구질환 단계에서 먼저 발견된 두 집단이 유의하게 더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모든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추적을 시작해 단순히 '더 일찍 진단해서 오래 산다'는 시간(lead-time) 효과를 최대한 보정한 후에도, MGUS에서 진행된 환자의 사망 위험은 바로 진단된 환자보다 약 47%나 낮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최근 저명한 국제학술지 《Blood Cancer Journal》(IF=11.6)에 게재됐다.



AI 기반 치료 권고, 간암 치료 한계와 가능성 동시 확인

간암 일부 병기에선 효과, 진행성 간암에선 한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양경모** 교수 연구팀(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한지원** 교수)이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실제 간암 치료 의사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간세포암 환자 13,000여 명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양 특성, 간기능 등 구조화 정보를 입력해 LLM(ChatGPT · Gemini · Claude)의 치료 권고를 생성하고, 실제 시행된 치료와의 일치율과 생존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AI 권고와 실제 치료의 일치율은 27~33%로 나타났다. 병기별 하위 분석에서는 일부 병기에서 AI 권고와 일치한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생존 차이가 관찰된 반면, 진행성 간암에선 오히려 일치군의 생존이 낮은 경향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최근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PLOS Medicine》(IF=9.9)에 게재됐다.



“파킨슨 환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파킨슨 환자의 생존 예측 지표 규명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핵의학과 **나세정** · **이영주** 교수, 신경외과 **이태규** 교수(병원장), 신경과 **오윤상** 교수 연구팀은 최근 파킨슨 증후군 환자의 생존 예측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규명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Clinical Nuclear Medicine》(IF=9.6)에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F-18 FP-CIT PE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해 뇌 속 선조체(Striatum)의 도파민 운반체 활성도를 정량 분석했다. 그 결과, 뇌의 미상핵(Caudate nucleus) 부위 도파민 운반체 활성도가 파킨슨 증후군 환자의 전체 생존율을 예측하는 독립적인 지표임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연구팀은 이번 지표 규명을 통해 향후 파킨슨 증후군 환자들에게 보다 정밀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예측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암 항암 전 '간 탄성도 검사'로 합병증 위험 예측

전신 항암 치료 후 간부전 · 출혈 위험, 치료 전 비침습 검사로 사전 평가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 교수(제1저자)와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한지원**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간 탄성도 검사로 측정된 간 경직도가 진행성 간암 환자의 전신 항암치료 이후 간부전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전신치료와 간 탄성도 검사를 받은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 39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간 탄성도 25kPa를 기준으로 환자를 분류해 임상 경과를 분석한 결과, 간 탄성도 25kPa 이상인 환자군은 25kPa 미만인 환자군에 비해 전신 치료 후 간부전 발생 위험이 약 2배 이상 높았고, 정맥류 출혈 위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외에도 간 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Child-Pugh 점수, 종양 개수, 고등급 문맥 침범 여부 등을 종합해 간부전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위험 점수 모델을 개발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간암 분야 최상위 국제학술지인 《Liver Cancer》(IF=9.1)에 게재 승인됐다.



미세플라스틱 관련 신경염증 원인 규명

‘크기’보다 ‘표면 성질’이 뇌 염증 유발의 핵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유승아** 교수(공동 교신저자), **임향숙** 교수(공동 교신저자), **남민경** 박사(공동 제1저자), **김채린** 대학원생(공동 제1저자) 공동 연구팀이 미세플라스틱의 ‘표면 화학적 특성’이 뇌 염증과 신경세포 손상을 결정짓는 요인임을 규명하고, 국제학술지 《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IF=6.1)에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표면 화학 구조가 서로 다른 폴리스티렌 미세플라스틱을 이용해 뇌 속 면역세포 역할을 하는 미세아교세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고, 아민기(질소와 수소의 결합물)가 노출된 미세플라스틱은 일반 미세플라스틱이나 카르복실기(탄소 · 산소 · 수소의 결합물)가 붙은 입자보다 빨리 미세아교세포 안으로 침투하고 강력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파악했다.

또한 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결과적으로 과산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을 생성하며 세포의 에너지 생성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원인임을 밝혔다.



‘조절 T 세포’, 자가면역간질환 치료 단서 제시

자가면역간염 환자 조절 T 세포 ‘수는 증가, 기능은 저하’ 확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제1저자: 가톨릭의대 간연구소 석사과정 **권미현**)은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자가면역간염 환자의 혈액과 간 조직 검사를 분석한 결과, 면역 균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절 T 세포(Treg)가 수적으로는 증가했음에도 불안정한 기능으로 인해 면역 억제 능력이 저하돼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국제학술지 《Hepatology International》(IF=6.1)에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다각적 실험을 통해 간 염증 단계가 심해질수록 조절 T 세포가 크게 증가하지만, 그 수에 비해 자가면역간염 환자의 Treg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억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팀은 mRNA(전사체)를 직접 분석해 세포별 유전자 발현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Treg가 오히려 일반 효과 T 세포와 유사한 성질을 띠며 불안정해진 상태로 전환돼 있음을 발견했다.



뇌졸중 환자 회복, 이제는 인공지능이 답한다

전국 4만 명 응급 뇌졸중 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개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오재상** 교수와 의료데이터학과 **고태훈** 교수 연구팀이 시를 활용해 급성 뇌경색 환자의 퇴원 시점 기능적 예후를 정확히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특정 병원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전국 심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4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뇌졸중 환자의 양호한 회복을 결정짓는 핵심 인자로 ▲젊은 나이 ▲낮은 초기 신경학적 손상 점수(NIHSS) ▲기계적 혈전제거술 시행 ▲재활 치료 여부 등 4가지가 유의미하게 확인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서포트 벡터 머신, 로지스틱 회귀 등 세 가지 기계학습 모델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중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곡선하면적(AUC) 0.87이라는 매우 높은 예측 정확도를 기록하며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이번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Scientific Reports》(IF=3.9)에 게재됐다.



로봇 끝에 실린 생명의 무게, AI로 내일의 희망을 설계하다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 홍성후 교수

이제는 로봇의 미세한 움직임과 인공지능(AI)의 계산이 환자의 수명을 결정짓는 시대다. 그 변화의 최전선, '로봇수술의 마에스트로'이자 '의료 AI의 개척자'로 불리는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홍성후 교수를 만났다.



모든 길을 마스터한 '천재 테크니션', 암이라는 사선(死線)을 택하다

비뇨의학과 내에서 홍성후 교수의 별명은 '천재적인 테크니션'이다. 단순히 한 분야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 호두까기증후군(왼쪽 신장의 정맥이 눌러 통증과 혈뇨를 유발하는 희귀 질환), 다한증, 성기능 장애, 요로결석 등 비뇨의학 전 분야를 마스터한 독보적인 기술자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길을 뒤로하고, 가장 고되고 힘들다는 '암(癌)' 치료의 길에 자신의 20년 경력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의사로서 기존 수술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항상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절제하고, 더 확실하게 기능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새로운 수술법을 고안하고, 동물 실험을 거쳐 실제 환자에게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특히 독특한 발상으로 난관을 뚫어낼 때 느끼는 즐거움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왜 굳이 암을 택했느냐는 질문에 홍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암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동료 의사들은 홍 교수가 고난도의 암 수술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생명을 환자의 생명과 맞바꾸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암 수술은 의사에게도 몸과 마음이 꺾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 끝나 환자와 가족들이 기뻐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쏟아낸 한 종이학에 담긴 집념, '로봇수술의 스페셜리스트'

현재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 교수는 비뇨기 암 수술에서 개복

수술 대신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을 전면으로 내세운 주역이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천재 테크니션'으로 불렸던 것은 아니다.

"2009년 서울성모병원에 로봇수술기가 처음 도입됐을 때, 저는 미국 연수 중이라 공식 교육 과정을 놓쳤습니다. 귀국했을 때는 이미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상태였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로봇수술이 끝나면 전원을 끄지 말고 연락해달라고 부탁해 밤마다 수술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로봇기구를 붙잡고 고리 옮기기, 매듭짓기, 봉합하기를 반복했다. 그의 수술 실력을 증명하는 유명한 일화가 바로 '종이학 접기'다. 엄지손톱만 한 종이를 로봇팔로 접기 시작해 나중에는 쌀알만 한 크기의 종이학을 접어냈다.

홍 교수의 완벽주의는 결과로 증명됐다.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아시아 최초로 로봇수술 전반에 대해 교육하는 Total Observation Center와 단일공 비뇨의학과 수술 참관센터로 지정됐고, 이젠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들이 로봇수술을 배우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연수를 온다.

의술과 기술의 결합, AI로 신장암 치료의 '내비게이션'을 만들다

최근 그는 의료 인공지능(AI) 분야에 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23년 세계 의료 인공지능 경진대회(KiTS23)에서 거대 기업 NVIDIA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이다. 기존의 2D CT 이미지를 넣으면 AI가 실시간으로 3D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이 AI는 신장암 부분절제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신장암 부분절제술을 시행할 때 종양의 위치뿐만 아니라 혈관과 요로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종양을 절제하는 것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을지까지 예측해 주죠. 말하자면 의사에게 가장 정교한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현재 그는 국책 과제인 '닥터앤서 3.0' 사업을 통해 수술 후 신부전이나 투석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AI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사의 무지는 최악이다', 수술대 앞에서 기도하는 거장

그는 환자들 사이에서 '친절한 명'으로 통한다. 그의 실력만큼이나 환자를 대하는 철학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의대에 입학할 때 들었던 '의사의 무지는 최악이다'라는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그의 수술 날 아침은 특별한 루틴으로 시작된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환자를 위한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이다. 기계적인 수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는 경외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환자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다. "과거에는 포기해야 했던 병들도 이제는 로봇수술과 AI, 그리고 고도화된 약물 치료 덕분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적고 회복은 빠릅니다.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 끝까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생명을, 환자에게 희망을

부천성모병원 구매관리팀 의공학Unit 서정충 UM

병원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료장비의 '생애'를 책임지는 이들이 있다. 수천 대의 의료장비가 환자의 생명을 위해 온전히 작동하게끔 책임지는 '생명의 엔지니어'인 의공기사들이다. 2006년 입사 이래 20년간 의공기사로 근무해온 부천성모병원 구매관리팀 의공학Unit 서정충 매니저는 최근 부서원 전원 국제의공기사 합격이라는 기록과 함께 그 노하우를 담은 지침서까지 출간했다. 기술자이자 봉사자로서 쌓아온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국내 최초 전원 합격,

'지침서' 출간으로 이어지다

서정충 매니저와 의공학Unit은 최근 의미 있는 업적을 남겼다. 미국 의료기기 발전협회(AAMI)가 주관하는 '국제의공기사 (CBET, 의료장비 기술사)' 자격시험에 부서원 전원이 응시해 국내 단일 대학병원 최초로 전원 취득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서 매니저는 시험 관련 정보가 전무했던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시험 분야부터 응시 및 접수 방법, 심지어는 비용 결제 방식까지 모두 AAMI 본사와 소통하거나 직접 부딪히며 알아가야 했고 이때 느낀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곧 책 출판으로 이어졌다. 다른 시험 도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침서 판매 수익금은 병원 사회사업팀과 성가복지병원에 전액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나눔의 선순환이라는 뜻깊은 결실까지 맺게 됐다.

나아가서 매니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중 이 가이드북을 영문으로 번역해 아마존에 진출해 세계의 의공기사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성가복지병원과 함께한 20년

서 매니저와 의공학Unit은 올해로 20년째 부천성모병원의 모태인 성가복지병원을 찾아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점검하는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긴 봉사 기간 중 항상 개인 휴가를 이용해 봉사길에 나섰다. 성가복지병원의 특성상 주말에 진료가 많아 의료기기를 점검하려면 평일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와 부서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답한다.

“성가복지병원에서 마주한 의료장비들은 그저 낡은 고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허락된 희망 중 일부였습니다. 그 희망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의공학Unit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 매니저는 20년의 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성가복지병원에 장비를 기부하고 감사의 편지를 받았을 때를 꼽았다. 당시 노후 장비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



던 성가복지병원의 상황을 알게 된 의공학UNIT은 기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병원에 건의했고, 병원의 검토 및 승인 후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내시경 장비 기증이 결정됐다. 성가복지병원 관리과에서는 기증과 그간의 봉사에 대한 감사를 담아 편지를 보냈고, 이는 서 매니저의 기억 속에 깊게 남았다.



성가복지병원에 이비인후과 내시경 장비를 기부한 사진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는 길

서 매니저의 책상에는 “어제와 같이 살면 내일도 똑같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그 문

구에 걸맞게 그와 부서원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겨자씨키움센터 활동에 도전해 '전립선 분쇄기 액세서리 개발' 등 디자인권 2건과 지적재산권 1건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도 2026년 겨자씨키움센터 공모전에 도전해 병동 간호팀과 협업하며 '반복 자동 혈액 차단 기능을 갖춘 일반형 Angio Catheter' 등 현장에 필요한 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10년 내로 특허 10건을 확보한 후 의공학 특허 관련 사례집을 편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께라서 가능했습니다”

서 매니저는 인터뷰 내내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후배들이 해외 의료봉사, 업무 전문성 향상, 육아 예세이 작가 도전 등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다는 그는, 부서원들을 향한 고마움을 전했다.

“처음에는 고구마 줄기를 하나씩 심는 마음으로 한 가닥씩 심었는데, 어느덧 알알이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는 지금입니다. 여러 분도 장기적으로 뜻한 바가 있으시면 ‘심어

보시고 수확하는' 기쁨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같이 일해온 식구 같은 부서원들과 함께 이뤄낸 것이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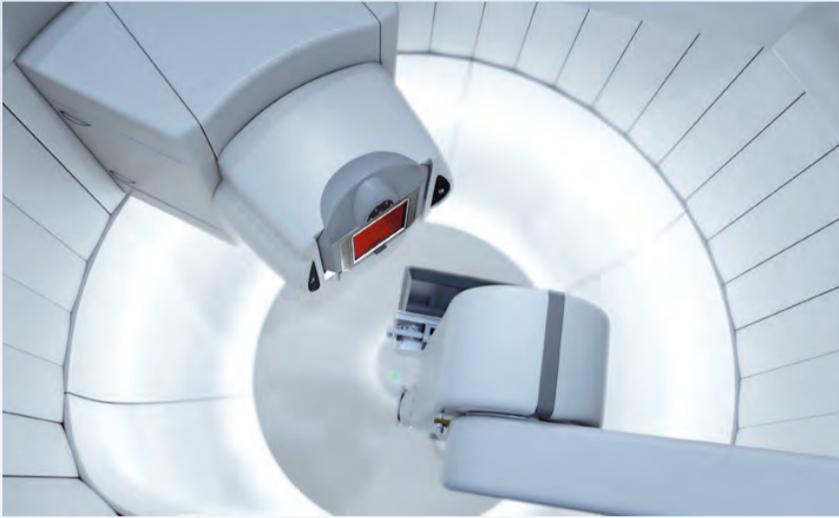
계속되는 영성구현

서정충 매니저와 의공학Unit은 20년간의 따뜻한 봉사와 혁신적인 도전을 모아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상 공모 분야에 참가하게 됐다. 상을 위해 만든 기록이 아닌, 20년간 순수하게 나뉜 마음을 이야기로 풀던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부천성모병원의 모태인 성가복지병원 의료장비 점검 봉사를 해온 지 20주년을 맞이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상 공모 분야 부서·단체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좋은 결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건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의공학Unit 부서원 전원의 합심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부서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차세대 암 치료의 핵심 거점이 될 양성자



양성자치료센터에 도입될 예정인 IBA社 Proteus PLUS의 회전식 치료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차세대 암 치료의 핵심 거점이 될 양성자치료센터 건립과 첨단 양성자치료기 도입을 공식화하며, 국내 최상위 암 치료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힌다. 병원은 이번 센터 건립을 통해 기존의 강점인 혈액암 치료 역량에 고형암 치료 경쟁력을 더해 고난도 암 치료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병원 경영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이지열 병원장은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양성자 기기 도입과 센터 건립은 서울성모병원 단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혈액병원에 더해, 암병원이 다시 한번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해나가는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 센터 건립, 2030년 완공 및 가동 목표

서울성모병원은 총면적 약 11,000평(지하 8층~지상 1층) 규모의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센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3Gantry(회전식 치료실)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다. 병원은 2030년까지 센터 건축과 양성자치료기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성자치료센터

총면적 약 11,000평

지하 8층~지상 1층 규모

3Gantry 시스템이 운영



적응
Adapt
치료 기
해도 별
하여 치
병원에서

서울성모 암병원 양성자치료센터

양성자치료센터 건립과 첨단 양성자치료기 도입 공식화

‘브래그 피크(Bragg Peak)’ 특성 활용

양성자치료는 암 부위에 양성자 빔을 집중 조사해 파괴하는 방식이다. 암 부위 도달 후 방사선량이 급격히 사라지는 ‘브래그 피크(Bragg Peak)’ 특성 덕분에 암 조직 후방에는 방사선 영향이 거의 없다. 이는 기존 방사선 치료 대비 정상 조직의 선량 피폭을 획기적으로 줄여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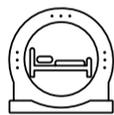
양성자치료기 도입 계약 기념식 개최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IBA社 및 주한벨기에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자치료기 계약 체결 기념식(Contract Signing Ceremony)’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IBA社 대표진과 주한벨기에 대사관 상무투자참사관, 학교법인 및 서울성모병원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양성자치료기 구매·설치와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기념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세계 최초·아시아 최초 첨단 기술 탑재

도입되는 장비는 양성자치료기 분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벨기에 IBA(Ion Beam Application)사의 ‘Proteus PLUS’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IBA는 입자 가속기 기술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IBA의 ‘Proteus PLUS’는 기존 국내에 도입된 1세대 양성자치료기에 비해 기술적으로 10년 이상 앞서나가 있다.



‘Proteus PLUS’의 특징

동적 양성자치료

Dynamic Proton Therapy

간 중 종양의 크기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 치료 각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하여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술로, 서울성모 암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구현된다.



다이나믹 아크 Dynamic ARC

360도 회전 갠트리를 활용해 0.1° 단위로 정밀하게 각도를 조절하며 양성자 빔을 연속 조사하는 기술이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돼 최적의 치료 각도를 제공한다.



수준은 높아지고, 참여는 넓어졌다 겨자씨키움센터 6기 미래위원 선발

제6회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시상, '6기 미래위원' 선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겨자씨키움센터는 최근 '제6회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 주역 '6기 미래위원'을 선발했다.

이번 공모전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역대 최다인 130건의 혁신·창업 아이디어가 접수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전년도 공모 아이디어 78건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올해는 6.8: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디어의 완성도와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모전의 경쟁률과 수준이 모두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올해 공모에는 다양한 직군과 직급의 구성원들이 참여해 의료현장 전반에 걸친 폭넓은 관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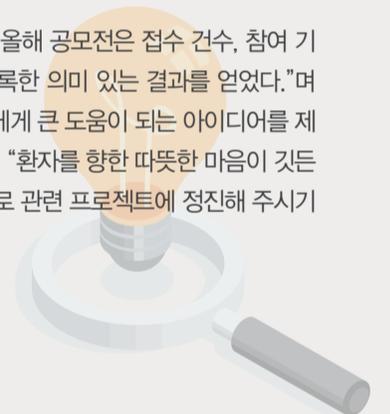
이번 제6회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공모 접수를 시작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서류·발표 등 여러 차례 단계별 심사를 통해 상위 19개 팀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9개 팀은 '6기 미래위원'으로서 향후 약 6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산업 아이템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지난 2월 3일 오전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3차 심사까지 오른 팀들을 대상으로 대상, 최우수상 각 부문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대상은 천리안팀, 최우수상은 Zeno_pBMD팀이 차지했다.

선발된 6기 미래위원들은 오는 3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미래위원들은 공모전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의료 현장의 혁신 과제 또는 의료 산업 창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사업화 계획을 수행한다.

겨자씨키움센터는 미래위원 팀들에게 컨설팅, 멘토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킹 제공, 연구비 지급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하반기 8월경 우수팀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데모데이 무대에서 기관 보직자 및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데모데이에 진출한 팀은 추가 혜택과 산학협력단을 통한 창업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는 차년도 기관별 사업 계획에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주교는 "올해 공모전은 접수 건수, 참여 기관, 아이디어 수준 모두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며 "우리 기관을 빛내는 것은 물론,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깃든 아이디어이기에 그 성실함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관련 프로젝트에 정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14년 연속 수상

건강 수명을 위한 '웰에이징(Well-aging)
검진 트렌드 선도할 것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가 최근 '2026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건강검진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14년 연속 수상이라는

패거를 달성했다.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는 1980년 국내 최초의 건강검진 전문센터로 개원한 이래, 이제는 단순 검진을 넘어 '웰에이징(Well-aging)' 흐름에 발맞춰 검진 서비스의 전 과정을 체계화해 운영하고 있다. 예약 상담 단계부터 검진 및 결과 상담까지 모든 과정에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 맞춤형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최신 의료 기술을 반영해 검진의 질을 높였다.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올리고머하 아밀로이드 베타 혈액검사'를 도입해 수검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그 예시다.

나아가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검진이 끝난 후에도 운동, 영양, 음주, 흡연,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습관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검진 결과에 따른 재검 시기와 관리 우선순위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이인석 평생건강증진센터장은 "앞으로도 'High-end



Wellness for you'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소비자가 믿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은평성모병원

최신 방사선 치료기 '트루빔 4.1' 도입

최신 트루빔 2대 가동 체계 구축
더 빠르고 더 정밀한 암 치료 구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트루빔(TrueBeam)'을 추가 도입하며 암 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도입된 '트루빔 4.1'은 현존 최고 사양 장비로,

차세대 지능형 아크치료 기술인 'RapidArc Dynamic'과 고 해상도 치료영상 시스템 'HyperSight'가 국내 최초로 탑재 됐다. 이를 통해 치료 부위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추적하며 고 난도 종양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움직임이 잦은 신장, 간, 폐, 유방은 물론 전이암과 수술이 까다로운 뇌 및 두경부암 등 극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치료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기존에는 일관된 치료 자세를 위해 환자 피부에 표식을 남겨야 했으나, 새로 도입된 표면유도 방사선치료 시스템 'Identify'는 천장의 특수 카메라가 환자 윤곽을 3차원으로 인식해 무표식(Markerless)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유방암 환자 등이 겪던 피부 표식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방사선 출력이 기존 대비 최대 4배 향상되어 치료 시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단축됐다. 이는 정상 조직의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 종양에만 에너지를 집중시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치료 편의성을 획



기적으로 개선했다.

은평성모병원은 기존 운영 중인 트루빔 1호기도 동일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로써 최신식 트루빔 2대를 가동하는 병원으로서 난치성 암 치료에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업그레이드 된 1호기는 오는 3월, 신규 2호기는 6월부터 정상 가동될 예정이다.



여의도성모병원

암 진단 25% 빨라진다 세계 첫 'AI FISH' 개발

세계 최초 AI 기반 FISH 질관리 인정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병리과 김태정 교수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P)가 주관한 '2025 AI 바우처 지원사업'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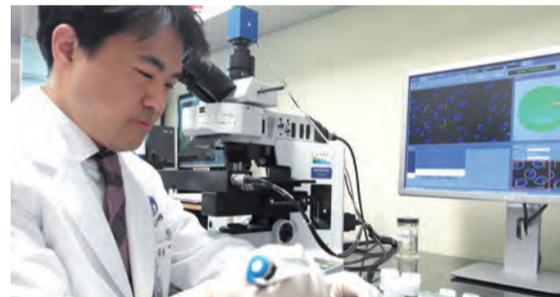


김태정 교수

이번 과제는 인공지능 전문기업 (주)모아이스와 공동 수행한 '이미지 품질 관리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FISH 판독 향상 솔루션'이다.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임상 적용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폐암, 유방암, 뇌종양, 림프종 등 암 치료 결정의 핵심인 형광제자리부합법(FISH) 검사를 AI가 자동으로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병리 전문가가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품질 평가 과정을 AI가 자동화함으로써, 판독 시간을 약 25% 단축하고 오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특히 AI 기반의 FISH 질관리 프로그램 개발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공인 기관을 통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높은 신뢰도를 입증했다.



현재 여의도성모병원 병리과는 전국 120여개 병원에서의뢰받은 검체를 분석하는 '중심 실험실(Central Laboratory)'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암 정밀의료 체계를 이끌고 있다.

김태정 교수는 "이번 평가는 AI가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해 진단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한 결과"라며 "앞으로 다양한 암종으로 기술을 확장해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국내 첫 경대정맥 대동맥 판막 치환술 실시

중증 신장질환 동반 대동맥판
질환자를 위한 새로운 해법 제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 장기욱 교수(순환기내과)가 국내 최초로 경대정맥 대동맥 판막 삽입술을 시행했다. 시술 대상은 당뇨로 신장 기능이 크게 감소된 79세

여성 환자였고, 이후 입원실에서 순조롭게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타비(TAVI)로 알려져 있는 경피적 대동맥판 치환술은 굳어진 대동맥 판막이 혈액 순환을 방해해 호흡곤란, 흉통 등을 유발하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술기다. 해당 치료는 가슴 부위를 여는 개흉 수술 대비 부담이 적어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이번 환자는 과거 시술을 받았음에도 좌심실박출률이 35%로 심각하게 저하돼 있었고, 폐부종과 함께 동반된 폐렴이 개선된 후에도 숨찬 증세가 지속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CT 검사 결과, 일반적인 대퇴동맥 접근은 불가능했고 좌측 팔동맥 상부에도 심한 석회성 협착이 관찰됐다.

이에 의료진은 대정맥을 통한 타비시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했다. 기존의 대퇴동맥 경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고안된 해당 방식은 해부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혈관 벽을 뚫어 '옆 혈관'으로 이동하는 술기로, 전 세계적으로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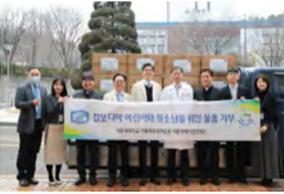


한된 고경험 센터에서만 시행되는 고난도 시술이다.

이번 시술을 주도한 장기욱 교수는 "중재적 치료 대안이 없어 체력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첫 치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캄보디아 코미소 클리닉에 학용품 지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코미소 클리닉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용품 총 26박스 기부를 위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지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교육과 기본 생활 지원이 필요한 캄보디아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학용품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캄보디아 의료봉사 활동 기간 중 현지 아동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 박선미 작가 작품 기증 받아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개원한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에 박선미 작가의 판화 작품을 기증받았다. 박 작가는 '앵무새 작가'로 잘 알려진 중견 작가로, 인간의 내면에 대한 질문을 이미지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증은 박 작가가 오랜 시간 추구해 온 '치유와 공감'이라는 가치가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뤄졌다.

여의도성모병원

'토요 패스트트랙 안과검진' 개시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이 평일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토요 패스트트랙 안과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안과 수석 전공의가 정밀 검진을 주관하고 이상 소견 발견 시 세부 전문의 외래로 연계하는 원스톱 체계다. 실명과 연관된 질환을 조기에



찾아 치료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나경선 안과병원장은 "평일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환자들에게 안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성모병원

어울림사회봉사회 식자재 및 명절 선물 전달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어울림 무료급식소'를 찾아 총 65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어울림 무료급식소는 어울림사회봉사회 한원식 회장이 운영해온 무료급식소로,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부천성모병원 김범준 세례자 요한 영성부원장 신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업과 소통, 관리자 워크숍 성료'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와 부서 간 협업 증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병원장의 2026년도 사업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관리자 역량 강화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릴레이 미션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의와 활동 프로그램을 병행한 구성은 관리자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소통과 친밀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7주년 기념 꽃 봉헌식 거행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선종 17주년을 기념해 꽃 봉헌식을 거행했다. 이번 꽃 봉헌식은 자신을 '바보'라 칭하며 장기이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떠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기억하기 위해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주관으로 마련됐다.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은 매년 뇌사 장기 기증자를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장기이식병원 내 '기억의 벽'을 조성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소중한 생명이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제1회 신경외과 개원의·봉직의 연수강좌' 개최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제1회 신경외과 개원의·봉직의 연수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지역 사회 의료진과 함께 최신 신경외과 임상 지식을 공유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진단 및 치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에는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을 비롯해 국내 주요 의료기관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연자로 참여했으며, 실제 임상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개원의와 봉직의들이 실질적인 진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정

* 기관별 / 가나다 순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강화선 교수가 '2025년도 국립대병원 제도 운영·발전 및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 유공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육 체계 발전에 공헌한 데 따른 것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점도 함께 수상의 사유로 인정받았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차기 회장 추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장기욱 교수가 대한심혈관중재학회(KSC) 차기 회장으로 추대됐다. 임기는 오는 9월부터다. 장 교수는 국내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 특히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I)'의 선구자 중 하나로 꼽히며,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최근 열린 총회에서 장기욱 교수의 학술적 업적과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초점 안경' 2건 특허 등록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황호식 교수가 노안 해결을 위한 자동초점 안경기술 2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특허는 ▲액체 렌즈 (liquid lens, 다이얼을 돌려 곡률을 바꾸는 렌즈) 기반 자동초점 안경 및 제어방법 ▲알바레스 렌즈(Alvarez lens, 상호보완 형상의 두 렌즈를 수평 이동해 초점을 조절하는 광학계) 기반 자동초점 안경 및 제어방법이다.

응급의료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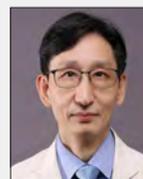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이운정 교수가 최근 지역사회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기여한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 교수는 의료 갈등 상황에서 응급의료센터의 핵심 진료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응급실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소방청장 표창 수상



성빈센트병원 응급의학과 정원중 교수가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도 국민 생명 보호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정 교수는 계속된 비상 진료 체계 속에서, 배후진료과 공백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처치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며 중증 응급환자 진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 선출



대전성모병원 외과 이상권 교수가 최근 대한비만학회 정기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에서 대한비만학회 부회장에 선출됐다. 대한비만학회는 국내 대표적 다학제 비만 학술단체로, 내과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학회에서 외과 교수인 이상권 교수가 부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비만치료에서 다학제 접근과 외과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 교수는 "부회장 임기를 맡은 1년간 대한비만학회가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학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래엔 그룹과 생명존중 기금행사 개최

미래엔 그룹, 의료 연구기금 2억원 기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1월 26일, (주)미래엔 및 (주)미래엔서해에너지로부터 의료 연구 기금 2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부금은 내분비내과와 신경과 연구기금으로 편성돼 난치성 질환 치료법 개발 등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되며, 이는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엔 그룹 김영진 회장은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은 그룹의 중요한 소명"이라며, "이번 기부가 의학 연구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창기 의료원장은 "매년 이어진 미래엔의 나눔은 연구와 진료에 큰 힘이 된다."며, "난치성 질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미래엔 그룹은 2022년 중증 소아 환아 지원을 시작으로 순환기내과, 신경과 등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얻은 생명의 기쁨, 나눔으로 보답합니다

손동철 · 조선호(안젤라) 부부, 흉부외과 연구기금 1억 원 기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30여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해온 손동철 · 조선호 부부가 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흉부외과 연구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부부에게 서울성모병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 그 이상이었으며, 힘들고 막막했던 순간, 적절한 치료와 따뜻한 위로로 곁을 지켜준 의료진 덕분에 부부는 '다시 얻은 생명'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부는 이번 기부를 결정하며 흉부외과 성숙환 · 현관용 · 김환욱 교수에게 각 별한 감사를 전했으며, 순환기내과 장기욱 교수를 비롯해 믿음직하고 따뜻한 미소로 환자를 맞이해준 의료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받은 따뜻한 위로와 생명의 기쁨이 이 기부금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의료진의 연구가 밑거름이 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부의 송고한 뜻은 흉부외과 연구 발전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 수많은 환자에게 새로운 내일을 선물하는 힘이 될 것이다.

(주)비나우 김대영 대표, 서울성모병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생명존중 가치 실현 위해 나눔의 뜻 모아

지난 2월 6일, 글로벌 뷰티 기업 (주)비나우의 김대영 대표가 서울성모병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영 대표를 비롯해 민창기 가톨릭중앙의료원장과 마취통증의학과 최훈 교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기부금은 서울성모병원 수술실 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료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영 대표는 최훈 교수와의 인연으로 의료진의 헌신에 공감하

며, "생명을 지키는 의료 현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민창기 의료원장은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주)비나우는 '넘버즈인(numbuzin)', '푸이(fwee)', '노크(Knock)' 등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1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신규선		신미진		최은아		최지혜		최대순		최 림			
강덕희	10,000원	강병욱	1,000,000원	신선미	10,000원	신종학	10,000원	최진경	10,000원	최한샘	20,000원	최석류	매월 3,000원	최자선	매월 10,000원
강양교	30,000원	고동이	10,000원	안유희	10,000원	안정옥	10,000원	한민지	매월 20,000원	한정선	10,000원	하성일	매월 5,000원	최경신	매월 1,000,000원
고성희	10,000원	고은아	20,000원	안지민	10,000원	안진선	10,000원	한혜진	10,000원	허정은	10,000원	현수완	매월 100,000원	황운찬	매월 400,000원
구보경	10,000원	구애경	10,000원	양명철	매월 20,000원	엄수진	20,000원	현은정	10,000원	홍영기	10,000원	황중하	매월 50,000원	주식회사 주우	매월 10,000,000원
구진주	10,000원	기현영	100,000원	오미진	10,000원	오세은	1,000,000원	황인실	10,000원	(주)선진	20,766,570원	익 명	매월 50,000원	익 명	매월 5,000원
길예원	10,000원	김경미	10,000원	오영남	10,000원	오혜리	10,000원	(주)플레이잇	320,000원	익 명	5,000,000원	익 명	매월 10,000원		
김경화	20,000원	김남희	10,000원	이보람	10,000원	유경진	10,000원	익 명	50,000원	익 명	40,000원				
김 령	10,000원	김문중	매월 30,000원	윤주영	10,000원	윤혜영	10,000원	익 명	2,000,000원	익 명	1,000원				
김미숙	10,000원	김민경	10,000원	이기현	10,000원	이경주	1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김민수	10,000원	김범상	10,000원	이나은	10,000원	이다솔	10,000원					김순희	매월 30,000원	김은기	매월 10,000,000원
김서희	10,000원	김선경	10,000원	이민지	50,000원	이보람	20,000원	대학(성의교정)				나미희	매월 30,000원	박유리	매월 10,000원
김소영	10,000원	김소현	10,000원	이보람	20,000원	이선희	10,000원	박은호	3,000,000원	배정철	20,000,000원	서진석	매월 1,000,000원	유승아	매월 200,000,000원
김숙영	10,000원	김아라	10,000원	이소현	10,000원	이승규	10,000원	서상범	6,000,000원	최진일	1,000,000원	이근일	매월 10,000원	이미정	매월 20,000원
김아리사	10,000원	김영현	10,000원	이영실	10,000원	이영재	10,000원	해산정학회	2,400,000원			이지영	매월 10,000원	정수진	매월 1,000,000원
김운란	10,000원	김유경	10,000원	이예솔	10,000원	이용규	10,000원					정현례	매월 500,000원	조시연	매월 10,000원
김 은	10,000원	김정우	10,000원	이유림	10,000원	이유진	10,000원	서울성모병원				최승이	매월 500,000원	최혜리	매월 100,000,000원
김주원	10,000원	김지은	30,000원	이은경	10,000원	이재선	10,000원	강민경	매월 5,000원	곽아름	1,00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레지오			
김 진	10,000원	김진아	10,000원	이정애	20,000원	이정환	10,000원	권순근	매월 100,000원	권인애	매월 1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저금통			
김진희	20,000원	김하윤	10,000원	이정애	20,000원	이정환	10,000원	김수민	매월 3,000원	김수정	3,000,000원	주식회사 탐			
김현진	10,000원	김혜경	10,000원	이지선	10,000원	이지영	10,000원	김장복	매월 50,000원	김재식	매월 5,000원				
김혜란	10,000원	김희정	10,000원	이지선	10,000원	이지현	10,000원	김종직	매월 1,000,000원	김태호	10,000,000원	부천성모병원			
나미희	10,000원	남분덕	10,000원	이지현	10,000원	이혜연	10,000원	김한식	매월 5,000원	김혜경	매월 10,000원	배치운	매월 1,000,000원	신광주	매월 50,000원
노선주	10,000원	노은희	10,000원	이화란	10,000원	이희라	10,000원	남은지	매월 10,000원	민은정	2,500,000원	심정숙	매월 500,000원	안상희	매월 50,000원
류성미	10,000원	맹순영	10,000원	임보경	10,000원	임지현	10,000원	박미숙	매월 10,000원	박병찬	50,000,000원	윤희로	매월 500,000원	이현승	매월 5,000,000원
문경희	10,000원	문애리	10,000원	장은영	10,000원	장태은	10,000원	박상준	매월 1,000,000원	백지빈	매월 5,000원				
문초희	50,000원	문향란	10,000원	장해수	10,000원	전지연	10,000원	석현수	매월 5,000원	소혜빈	매월 5,000원	은평성모병원			
문혜신	10,000원	문화정	10,000원	전진영	10,000원	전희연	10,000원	신수연	매월 20,000,000원	심정섭	매월 5,000원	김소리	매월 5,000원	김형미	매월 10,000원
박경덕	20,000원	박경애	50,000원	정금열	10,000원	정다솔	10,000원	신해린	매월 500,000원	심예지	100,000원	김효은	매월 5,000원	박미숙	매월 100,000원
박나현	10,000원	박도현	10,000원	정문경	10,000원	정보영	10,000원	양광현	매월 5,000원	양원식	매월 200,000원	위은혜	매월 10,000원	윤연식	매월 1,000,000원
박송아	10,000원	박수정	10,000원	정삼미	10,000원	정승원	10,000원	양원식	매월 10,000,000원	이근혜	매월 5,000원	윤준식	매월 1,000,000원	정승원	매월 5,000원
박송만	10,000원	박원민	10,000원	정원주	10,000원	정유나	20,000원	이나경	매월 3,000원	이의식	매월 5,000원	현동주	매월 500,000원	황영희	매월 100,000원
박은영	10,000원	박은주	10,000원	정은미	10,000원	정은영	10,000원	이지원	매월 5,000원	이장혜	500,000원	다온디자인	매월 100,000원	명일엔G	매월 300,000원
박재경	10,000원	박종화	10,000원	정지숙	10,000원	정 진	10,000원	임지현	매월 10,000원	장권배	10,000,000원	명일알마늄			
박혜림	10,000원	박혜민	10,000원	조민경	10,000원	조유진	10,000원	장부순	매월 500,000원	장 선	20,000원	바다의별어린이집			
반자영	10,000원	배은정	10,000원	조은지	10,000원	조현진	10,000원	장현승	매월 3,000원	장현식	매월 10,000원	용성하우징(용기운)	매월		
백승훈	10,000원	백지현	10,000원	주은영	매월 10,000원	차원희	10,000원	정다현	매월 150,000원	정상훈(정하윤)	1,000,000원	주식회사 명일커피엔			
백현주	10,000원	성지민	10,000원	차현희	10,000원	최경화	20,000원	정인성	매월 1,500,000원	정주희	매월 10,000원	의 명	139,610원	의 명	매월 30,000원
송경희	50,000원	송승아	10,000원	최규홍	매월 100,000,000원	최미혜	10,000원	조영진	매월 5,000원	조현지	매월 10,000원				
				최미혜	10,000원	최성희	10,000원	조형주	매월 1,000,000원	지성관	매월 300,000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기증 4천례 달성

얼굴 모르는 이웃에게 전한 4,000번의 생명 약속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이 비혈연 간 조혈 모세포 기증 4,000례를 달성하며 최근 가톨릭대학교 옴니 버스 파크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정연준 가톨릭조혈 모 세포은행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을 비롯

해 김유진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장, 실제 기증에 참여한 4,000번째 기증자 배진실 간호사(서울아산병원 임병원), 관련 의료진과 교직원들이 함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과 한국조혈모 세포은행협회, 단 두 곳뿐이다. 그 중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설립 초기부터 '생명 존중'이라는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 나눔의 가치를 의료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해 왔다.

이번 4,000례 달성은 기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과 이를 뒷받침한 의료진, 조정자들의 오랜 헌신이 모여 이뤄낸 결과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고 불편함을 감수한 기증자들의 선택이 수많은 생명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냈다.

정연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장은 "앞으로도 기증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환자에게는 더 빠르고 안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기증자 예우 강화, 기증 절차의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이 특별한 결심이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명 나눔 문화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간호 대학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기초 현황조사 실시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KOICA)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및 현지 사무소 개소 준비 방문이 진행됐다.

이번 방문은 약 8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이뤄졌으며,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간호대학 강재진 연구교수가 현지에 파견돼 관련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환경과 의료인력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성과 단계별 실행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다.

아울러 현지 보건의료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현지 사무소 개소 준비 사항 전반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향후 현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 수행 여건을 조성했다.

본 사업은 KOICA의 지원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의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현지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동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성모

설 명절 맞아 이웃사랑 성금 전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부평2동, 부평3동, 부개1동, 일신동 행정복지센터에 '선택이 이웃사랑 나눔' 성금 약 2,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인천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교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은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홀몸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홍승모 몬시뇰 인천성모병원장은 "교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빈 센터

성빈센터자선회, 미얀마 의료봉사 진행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 성빈센터자선회가 최근 미얀마 양곤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단은 성빈센터병원 류마티스내과 정승민 교수를 단장으로, 소화기내과 이아림 교수, 외래간호팀 김연옥·임수미 간호사, 영상의학팀 박민선 방사선사, 진단검사의학팀 임창민 임상병리사와 안산빈센트의원 이명신 수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성빈센터자선회가 미얀마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봉사단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미얀마 양곤 지역에 임시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봉사 기간 동안 무료 진료소는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현지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으며, 이에 봉사단은 실세 없이 외래 진료와 검사, 약 처방 등을 시행해, 총 417명의 현지 주민들을 진료했다.

봉사단장 정승민 교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준 봉사단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일본 성마리아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터병원 의료 교류 방문

일본 후쿠오카 성마리아병원 의료진이 최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을 방문해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영적 돌봄을 기반으로 한 진료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마리아병원 방문단은 테라다 아츠무 부원장, 오사키 코이치 수혈과 진료부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첫날은 영성부의 영적 돌봄 프로그램 발표로 시작해 성빈센터병원의 주요 진료 분야와 병원 운영 및 진료 시스템을 공유했다. 또한 주요 진료과의 진료 환경과 인프라를 살펴보고, 진료 프로세스와 협력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수녀원 방문에 이어 호스피스완화 의료센터를 중점적으로 견학하며 성빈센터병원의 환자 중심 의료와 가톨릭 의료기관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성빈센터병원은 앞으로도 국제 의료 협력과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중심 의료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칼을 대지 않는 가장 정교한 뇌수술” 최첨단 감마나이프 Elekta Esprit 3월 본격 가동!

뇌종양, 뇌혈관질환, 뇌정위 기능치료 분야에서 가장 진보된 비침습적 방사선 수술이 시작됩니다.



최상위 최신 모델

국내 설치된 장비 중
가장 진보적인
감마나이프 장비



0.3mm 초정밀 타격

정상 뇌 조직
손상 최소화하는
최고의 정밀성



192개의 집중 빔 (Beam)

안전과 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는
정교한 치료



넓은 뇌 질환 치료

뇌종양, 뇌혈관질환,
뇌정위 기능치료 등
다양한 적응증



비침습적 무출혈 수술

고령·고위험 환자도
안전하게 치료하는
비침습 수술

토요 패스트랙 안과 검진

평일 내원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주 토요일** 정밀 검진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질환 발견 시 전문의 진료로 빠르게 연결합니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안과 세부 전문의 진료를 일반 초진 예약보다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패스트랙(Fast-Track) 시스템**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 1661-7575)

나안시력측정

교정 이전 시력 측정

교정시력측정

안경 착용 상태 측정

각막곡률검사

각막 전면 곡률반경 측정

세극등검사와 진료

전문의 전안부 현미경 진료

안압측정검사

안구 내부 압력 측정

기본시야검사

녹내장 및 시야손상 여부

안구광학단층촬영

망막 및 시신경 단층 정밀 촬영

안저촬영검사

망막 중심부(황반) 촬영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YEOUIDO ST. MARY'S EYE HOSPITAL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ujb.or.kr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MFICU

경기북부 고위험 임신부 위한 '24시간 의료 안전망'으로 순항

'고위험 임신부 집중치료실' 시설·인력 완비, 고위험 분만 안전 거점 역할 톡톡
임신·출산 합병증 24시간 전문 모니터링 및 밀착 케어 시스템 안착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MFICU)가 경기북부 지역의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성공적인 운영 궤도에 오르며 순항하고 있다.

MFICU(Maternal Fetal Intensive Care Unit)는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을 뜻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산모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임신중독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24시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모니터링하는 특수 병동이다. 특히 **개소 후 설 연휴를 포함한 보름 남짓한 기간(2월 1일~14일) 동안 총 11명의 고위험 산모가 집중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퇴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병원의 영성 경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결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 MFICU는 고위험 산모의 분만을 위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강력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부인과 교수진을 필두로 한 전담 의료진은 24시간 밀착 대응 체계를 가동, 태아가사나 조기 진통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센터 운영의 핵심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 지역 내 중증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센터 내에는 최첨단 태아감시 장비와 집중 치료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초단위로 체크하며 합병증 예방 및 처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태규 병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분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고위험 임신부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앞으로도 완벽한 시설과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생명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천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1577-0675
 영 육 치 료



건강, 그 이상의 행복 실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www.cmcbucheon.or.kr

암 치료

응급은 아니나 **긴급**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치료하는 부천성모병원



유방암



폐암



대장암



위암



간·담도암



췌장암



갑상선암



부인암



비노기암



뇌종양



림프종



식도암



골육종



피부암



두경부암



최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
 (NGS)



정확한 암진단 및 신속한 수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

8개 진료과 협력, 다학제 유방암 치료 시스템 은평성모병원 유방암센터



영상의학과 정나영 교수 **핵의학과 권수진 교수**

섬세한수술 체계적인 관리 정확한 영상 및 진단검사

유방외과 최승혜 교수 **유방외과 임용화 교수** **핵의학과 박혜림 교수** **영상의학과 정승은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조성진 교수**

상실된 가슴을 더욱 아름답게 '트루빔' 첨단 방사선 치료 맞춤형 항암치료

성형외과 나은영 교수 **성형외과 김지윤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이시원 교수** **종양내과 이재진 교수**

정확한 암 치료와 자연스러운 재건을 통해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다학제 진료 시스템

8개 진료과 협력, 환자별 맞춤치료
유방외과/성형외과/종양내과/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핵의학과/병리과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

최신 트루빔 '4.1' 올해 6월 정상 가동
기존 트루빔 업그레이드로 최첨단 암 치료기 2대 운영

유방암 수술 및 재건술 시행

'유방보존술·유방재건술'등
수술 후 삶까지 고려한 치료

표적 항암치료

환자별 맞춤형 항암치료로
항암제 부작용 최소화

신속 진료 시스템

대기 부담 줄인 신속 검사
양성 종양 제거 시 '당일 수술 - 당일 퇴원'

최첨단 장비

로봇수술기 다빈치, 3차원 유방촬영기, 저선량 PET-CT,
국내 최고 사양 CT 및 초음파 장비 보유